

“연등회는 추모제로 엄숙하게”

중앙종회 연석회의서
6월25일 임시회 소집



꽃도 피우지 못한 어린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기성세대의 참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산 불교계가 지난 24일부터 매일 300배 정진으로 비통에 잠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안산=신재호 기자). 오른쪽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청계천에서 개막한 제7회 전통등전시회에서 실종자 무사생환을 기원하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들. 김형주 기자 coajoo@bulgyo.com

총무원장 선거법 등 종단 주요 현안을 다룬 중앙종회 제198회 임시회가 오는 6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항적스님)는 지난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회의 진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종무보고와 종책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안, 비구니 회계위원 참여 관련 안건 등 종헌·종법 개정안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임시회 개최에 앞서 23일부터 24일까지 제15대 중앙종회 활동을 정리하는 연수를 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추모제 형식으로 봉축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등 봉축행사를 엄숙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총무원에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앙종회의장 항적스님은 이 자리에서 “연등회 제등행렬이 자칫 축제 분위기로 흐를 경우 국가적인 애도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범불교적인 추모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총무원이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 일선 사찰에 시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문 등을 전국 사찰에서 동일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총무원 총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허정철 기자 hje@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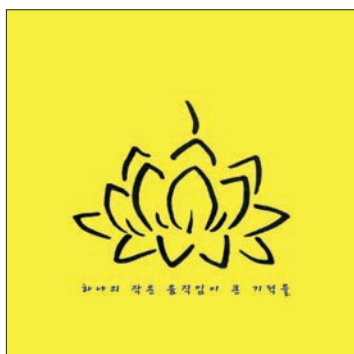
안산불교계 합동조문 후 매일 300배

“슬픔과 미움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희망과 자비심으로 채워 나갔으면...”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 ‘세월호 탑승자들의 생환을 기원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미안합니다’ ‘참회합니다’ 지난 24일 오후7시 안산 화랑유원지에 모인 30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은 이같은 문구가 적힌 종이를 앞에 둔 채 목탁소리에 맞춰 1배, 1배를 올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이번 참사가 인제(人災)임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비통함과 원망에 휩싸였다. 특히 꽃도 채 피우지 못한 어린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기성세대의 참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대 피해지역인 안산 지역의 불교계는 지난 23일 임시합동분향소를 단체로 조문해 애도를 표한데 이어 24일부터 단원과 학생들을 지키지 못한 참회의 300배(拜) 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100배를 넘어서면서 이마는 물론 온 몸이 젖어갔다. 눈에서는 참회의 눈물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안산 시민 가운데 몇 사람만 거치면 단원과 학생들과 인연이 닿지 않는 이가 없는 만큼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50여분의 시간이 흐르자 300배 정진을 마쳤다. 땀과 눈물로 흠뻑 젖은 얼굴을 닦은 스님과 불자들은 곧바로 가부좌를 튼 뒤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 뒤 다음날 더 많은 도반들과 함께하길 기약하며 회향했다.

참회의 300배 정진을 제안한 부국종합사회복지관장 도선스님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애도만 하고 있을 수 없어 불교인으로서 불교적 방편인 참회를 하라고 제안했다”면서 “참회를 통해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어야만 화합할 수 있는 만큼 지역 불자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진 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문선원 총무 정진스님은



실종자 무사생환 기원 노란연등.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과 원망, 연민 등이 있겠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탓하기 보다는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겠다”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진다면 슬픔과 미움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희망과 자비심으로 채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불교계는 구호활동은 물론 국민적 애도의 물결에도 적

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단이 지난 17일부터 진도에서 구호활동 지원과 임시법당에서의 예불과 상담 등을 통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전국 각 사찰들이 잇따라 진도를 방문해 애도의 뜻을 전하고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조계사 등 각 사찰마다 분향소를 설치하거나 연등을 달고 기원법회를 통해 희생자 극락왕생과 실종자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다. 해외 불교계도 추모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일한불교교류협회의와 중국불교협회는 지난 19일과 23일 각각 애도문을 통해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했으며 달라이라마도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위로전문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너무나 많은, 너무도 어린 인명의 손실은 그들의 가족과 친구

가 가슴이 찢어질 듯이 고통스러울 비극이다.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고 전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이 지난 24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KBS 부산방송총국을 통해 1억원을 전달하는 등 후원금과 물품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노란리본’이 물결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노란연등’을 통해 실종자의 무사생환을 기원하고 있다. 노란연등을 제작한 육군 8사단 팔정사 주지 지용 구운호 법사는 “SNS를 통해 노란리본을 받았는데 화질이 너무 떨어져 새로 만들려다가 불교적인 연등에 착안해 노란연등을 제작하게 됐다”면서 “모든 이들의 마음처럼 너무나 안타깝고 하루빨리 무사생환자가 나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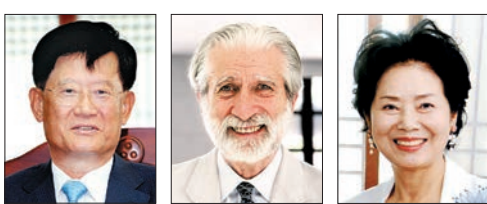
▶관련기사 2·3·5·7면

안산=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김동건·랭카스터·선우용녀 ‘올해의 불자대상’ 영예

불기 2558년 불자대상에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 루이스 랭카스터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명예교수, 탤런트 선우용녀 씨가 각각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23일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 루이스 랭카스터 미국 UC 버클리대학교 명



김동건 불교포럼 대표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 탤런트 선우용녀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직접 시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불교포럼을 통해 사회 각계 불자지도자들의 대사회적 활동을 확대하는데 기여했고,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불자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면서 “오는 5월6일 오전10시 조계사에서

스터 교수는 버클리 대학 내 불교학 박사과정을 창설하는 등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섰다. 또 연예계 대표적인 불자인 선우용녀 씨는 불교TV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영상 포교에 남다른 노력을 펼친 공로가 인정됐다.

한편 올해로 11회를 맞은 불자대상은 불법홍포에 공로가 큰 불자와 한국불교 위상제고에 공로가 큰 불자, 불자의 자긍심 고취에 공로가 큰 불자를 치하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됐다.

허정철 기자

실종자 무사귀환 희생자 왕생기원

백색영가등 노란리본
제7회 전통등 전시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로 지난 23일 서울 청계천에서 개막한 제7회 전통등전시회는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위기로 시작됐다. 행사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들은 청계천 일대에 걸린 연등을 관람하고 실종자 무사귀환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문구를 적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창자 장엄등과 가로연등 등 1000여개의 등이 내걸렸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에서 가로연등 구간에 백색 영가등을 설치하고,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달기 행사도 진행됐다. 스님들은 촛불로 ‘무사생환’이라고 쓰인 곳에서 다시 기도를 올렸다.

‘불교, 나라를 지키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장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관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경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스님 등이 참석했다.

전통등전시회는 같은날 서울 봉은사에서도 개막했다. 오는 5월6일 부처님오신날까지 14일 동안 등을 밝힌다. 재물보다 참다운 마음이 소중하다는 빈자일등의 정신과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통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지면안내

“춘추제왕은 국향으로”
대홍사 서산대제 봉행 5면

“오계가 생활을 비단다”
일진스님 노산훈원소 법문 8면



‘생명나눔 명예의 전당’
어떤 분들이 갈 수 있나 15면

강소성 영산대불 보셨나요 16면

KOBA 2014



5.20(화)~23(금) COEX

역대최대 규모 27,997sqm
33개국 893개사 참가!

www.kobashow.com

24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방송, UHD를 열다!

